

중부권

전국 귀농인 강진에 모였다

오늘까지 귀농대회...500여명 참여 농업 미래 모색

공직자·귀농운동가 등 정책설명·정보교환

'귀농 1번지'로 각광받고 있는 강진에서 전국의 귀농·귀촌 담당 공무원과 귀농활동가, 귀농·귀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바담잡담 귀농·귀촌과 정책, 지원체계 등을 모색한다.

의 중요성을 알린다"란 주제로 기초 발표를 했고, 충북 괴산, 경북 상주 등 각 지자체의 귀농 실무자들의 귀농 사례발표 시간이 주어졌다.

를 제정하고 ▲귀농자의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 ▲정책적 공공성 등을 심의해 귀농 정착 지원금을 주고 있다.



보리밭 사이길로

우산을 쓴 어린이들이 9일 강진군 군동면 화방마을을 보리밭 사이길을 걷어가고 있다. 꽃샘추위속에서도 봄을 맞이하는 어린이들의 발걸음은 경쾌하다.

군동농협, 강진농협에 흡수합병

조합원 투표 75% 찬성...6월부터 통합

'부실경영'으로 지난해 9월 농협중앙회로부터 흡수합병 권고를 받았던 강진군동농협이 오는 6월초 강진농협(조합장 김근진)에 합병될 전망이다.

장흥군 나무 54만그루 심는다

올해 8억여원 들여 조림사업 추진

장흥군은 올해 8억3천700만원을 들여 모두 54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장흥군은 오는 19일 장흥 관광추진위원회와 재정 향우회, 장흥군청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산을 정남진 일원에서 식목행사를 갖는다.

생산, 표고자목의 안정적 공급, 산림경영 활성화, 경제수 조림, 기능성 고로쇠·황칠나무 등 특용수 조림을 통한 산촌의 부가가치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회 전국 귀농·귀촌 전국대회'가 9·10일 강진군 도암면 다산 수련원에서 귀농·귀촌 담당자와 귀농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나주지역 오수처리 용역업체 전직 교원 고용

학교 시설물 관리 용역 싸늘이

한 오수처리용역 업체가 전직 교원을 고용해 나주지역 일선 학교의 시설물 관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설은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 ▲전기안전 관리용역 ▲물탱크(저수조) 청소용역 ▲소독용역 등이다.

역계약을 대거 수주했다. 실제로 A업체의 경우 21개학교 가운데 12개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등산 의병 다큐멘터리 만든다

광산구 8월까지 제작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광주 광산구가 구한말 '어등산 의병'을 활동상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선다.

학교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자문회를 구성해 작품의 객관성·사실성을 높이고 어등산, 용진산, 석문산에 표제석을 설치, 의병들의 활동상을 기록하기로 했다.

새얼굴

"임산물 판로확대 소득 창출 최선"

김재성 영암군 산림조합장



"투명한 경영과 건실한 운영을 통해 튼튼한 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재성(60) 영암군 산림조합장은 "35년 산림공무원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소득향상과 산림생산물 증진을 위해 임산물 판로확대와 유통의 원활화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은 광주농고와 동아인재대를 졸업했다. 지난 1974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신북·금정·도포·학산면장, 영암군 산림축산과장, 문화유적관리소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류영남(56)씨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KAMCO 05차 압류재산 공매광고. Includes a table with columns for auction number, location, purpose, type, area, and price. Also includes detailed text about the auction process and terms.